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9월 23일(주일) 제1214호



사진은 2017 부흥집회 'ReFORM'.

2018 온누리 부흥축제 '바른 성공'

10월 24~26일 서빙고 본당 ... 강사 데이비드 플랫 목사
9월 30일부터 참가자 모집, 홈페이지 또는 안내데스크

2018 온누리 부흥축제가 '바른 성공'을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주강사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이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맥린바이블교회 담임목사이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다니며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온누리교회 부흥축제 강사로 초청돼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저서로는 <래디컬>, <카운터 컬처>, <팔로우 미>(두란노) 등이 있다.

올해 부흥축제에서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의

6번 강의, 이영표(前 축구 국가대표), 김영애 권사의 간증, 박현우 대표(이노레드), 배상민 교수(카이스트)의 특강이 열릴 예정이다.

부흥축제 참가자 모집은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주일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서 신

청하면 된다. 회비는 10월 14일까지 사전등록 1만 원, 이후 2만 원이다.

부흥축제 본부 측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공의 의미를 경제적 가치에 두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이 아니다"며 "부흥축제를 통해 특히 다음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참 성공의 의미를 알려주고, 가치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시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2-3215-353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오는 10월 7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10월 7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 스티커를 발급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는 사회선교부 소속 생명과 환경팀이 (재)녹색미래와 함께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캠페인도 실시한다.

확대 당회

일시: 10월 6일 오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 장로

* '추석감사예배 및 추도에배운'은 온누리신문(www.onnuri.org)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캠퍼스, 공동체, 순, 부서별 헌물 모집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새찬송가 590장)
다음 주일(9월 30일)은 추수감사주일이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아주 뜻 깊은 절기이다.

온누리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국내 10개 캠퍼스, 공동체, 순, 부서별로 쌀과 과일 등의 감사헌물을 모집한다. 성도들이 봉헌한 헌물은 사회선교본부에서 선정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빙고와 양재 9월 29일까지 서빙고 본당과

양재 사랑홀 1층 로비, 부천 29일 오후 5시까지 본당, 대전 29일 목회지원실과 본당, 남양주 29일 오전 11시까지 본당, 평택 28일 본당, 강동 29일 본당, 양지 29일 본당, 도곡교육관 29일 오후 1시까지 숙명여고 대강당 로비에서 추수감사절 헌물을 받는다. 차세대는 9월 30일에 부서별로 헌물을 모은다.

온누리교회는 올해부터 미국과 한국의 절기가 맞지 않는 것을 고려해서 추석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5만 후원자가
돼주세요"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CGNTV가 오는 10월 7일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실시한다. '5만 후원자가 돼주세요'를 주제로 실시되는 후원행사에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CGNTV 홈페이지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CGNTV는 후원자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현재 CGNTV 후원자는 3만여 명이다. 기존 후원자가 신규 후원자 한 명씩만 추천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관련 기사 6면>.

홈페이지: www.cgntv.net

문의: 02-796-2243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한계의 벽을 깨고 일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8일, 1급 지적장애인 김영훈 형제(예수사랑부, 35세)가 예수제자학교(이하 JDS)를 수료하자 어머니 김영희 권사(서초C공동체)가 한 고백이다. 김영훈 형제는 14기 JDS 양재 저녁반을 담당하게 졸업했다. 일반 성도들도 과정이 길고 과제가 많아서 수료가 쉽지 않다는 JDS 과정을 묵묵하게 해냈다. 그 뒤에는 장애를 뛰어 넘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품어준 14기 JDS 양재 저녁반 학생들의 사랑이 숨어 있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사랑은 장애를 뛰어 넘는다”

1급 지적장애인 김영훈 형제 예수제자학교(JDS) 수료



14기 JDS 양재 저녁반 식구들과 함께(왼쪽부터 김영희 권사, 김도균 목사, 김영훈 형제, 김준홍 장로, 백흥기 장로, 오범규 팀장).

‘사랑은 마음속에서 자란다’는 속담이 있다. 사랑은 같이 생활하면서 마음속에서 움트고 자란다는 의미다. 이 속담처럼 김영훈 형제와 14기 JDS 양재 저녁반 학생들은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먹고 마셨다. 김영훈 형제의 부모인 김준홍 장로와 김영희 권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14기 JDS 양재 저녁반 학생들은 오히려 “김영훈 형제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고 깊이 느꼈다”며 공을 돌렸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에는 꽃향기가 가득했다.

1급 지적장애인 김영훈 형제가 JDS 과정을 수료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 선물이다. 그러나 그의 부모 김준홍 장로, 김영희 권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있다. 아들이 다시 한 번 세상으로 나오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지난 35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보상받은 기분이 들었다.

지쳐있던 삶에 생기가...

김영훈 형제는 지적장애 1급이다. 지적장애는 지능, 지적, 인지 능력과 심리적, 사회적 적응 능력이 부족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를 말한다. 그 어떤 보석보다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김영훈 형제에게 장애가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다. 김영훈 형제가 세살 무렵이었다.

“깎는 것이 느리고 말하는 것도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이었다.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아프고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10년 넘게 방황했다. 김영희 권사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집에만 있었고, 김준홍 장로는 그 상처와 아픔을 세상의 패락으로 채우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부부와 김영훈 형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김영희 권사에게 둘째 아이가 생겼다.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었다. 둘째 아이도 큰아이처럼 장애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당시 위층에 살던 부부가 김 권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다고 했다. 김 권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다. 신기하게 그들 부부의 기도를 받고 있으면 평안이 찾아왔다. 둘째인 딸 한나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위층 살던 부부의 초청으로 난생 처음 교회에도 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사로잡혔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요 9:2-3).

꼭 필요한 평안과 위로가 임했다. 아들에게도 아주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교회를 다닐수록 아들을 위한 공동체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지인을 통해 사랑부를 소개받고 1998년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온 가족이 사랑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했다. 김영훈 형제는 사랑캠퍼스에서 헬로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쳐있던 삶에 생기가 넘쳤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 축복도 누렸다.

“불심과 유교사상이 강했던 우리 집안 식구들이 교회에서 회복된 우리 부부와 영훈이를 보면서 교회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준홍 장로는 벌써 20년 가까이 장애인 부서를 섬기고 있다. 사랑부 부모회 회장을 시작으로 장애인부서 담당 장로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그 원동력은 아들이었다.

“사실 장애가 있는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아들 덕분에 제가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장애를 넘어 희망을 보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1급 지적장애인 김영훈 형제가 JDS 과정을 수료한 것은 수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 김영훈 형제가 다시 한 번 세상 속으로 나설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실 김영훈 형제의 부모도 아들이 JDS 과정을 수료할 거라고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7년 동안 JDS 간사로 섬긴 이숙경 권사가 김영훈 형제의 큐티와 과제를 일대일로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용기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숙경 권사의 도움은 절대적이었다. 이 권사는 약속대로 김영훈 형제의 돌도 없는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 큐티를 할 때면 말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독후감을 내야 할 때면 책의 제목과 목차를 함께 쓰면서 김영훈 형제가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왔다. JDS 훈련 이후 김영훈 형제의 말수가 부쩍 늘었다.

“영훈이가 처음에는 의사표현을 매우 짧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덧붙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감도 생겼고요.”

JDS의 꽃인 여름 아웃리치는 김영훈 형제와 부모에게 잊지 못할 최고의 선물이었다. 사실 아웃리치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영훈이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해외 아웃리치를 간 적이 없다보니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걱정과 달리 김영훈 형제는 정말 씩씩했다. 아웃리치 사전 모임부터 사역까지 모든 활동에 참석했다. 아웃리치 가는 날 가장 먼저 짐을 챙긴 것도 김영훈 형제였다. 일주일 동안의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후에는 표정까지 밝아졌다. 김영훈 형제와 함께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다녀온 팀원들에게도 뜻 깊은 기억으로 남았다. 함께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경

민 집사는 “배려하고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배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14기 JDS 양재 저녁반 담당 김도균牧사는 김영훈 형제와 함께한 JDS 과정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겼다.

“김영훈 형제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나누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형제는 지금 양재 온누리교회 2부 예배 안내봉사를 하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도 받을 예정이다. 김영희 권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14기 JDS 양재 저녁반 학생들의 사랑 덕분이라고 고백했다.

“JDS 훈련기간 6개월이 우리 가족에게는 지난 35년 동안의 세월을 보상받는 것처럼 큰 축복이었어요. 사랑만 있다면 장애를 넘어 우리 영훈이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14기 JDS 양재 저녁반 식구들께

“여러분은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훈이 엄마 김영희 권사입니다. 영훈이가 JDS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14기 JDS 양재 저녁반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영훈이가 다녀온 캄보디아 아웃리치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영훈이가 세상 밖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훈이를 자녀같이, 조카같이, 형제같이 돌봐주시고, 격려와 사랑으로 힘이 되어 주시고, 믿음의 식구가 되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영훈이가 어려운 문턱을 넘어 축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훈이의 삶에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교제를 통해 영훈이가 기쁨을 얻고 감성이 풍성해진 것을 봅니다. 영훈이에게 큰 선물을 주신 14기 JDS 양재 저녁반 식구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 김영희 권사(서초C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믿음의 성장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서만 이루어집니다. 성경 지식이 증가하고, 예배 참석이 친숙해지고, 봉사과 헌신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분별력이 없거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현하지 못합니다. 전쟁 중에 긴장을 풀고 경계를 늦추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만과 방심은 패배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기억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휴전도 냉전도 없습니다. 승리나 패배나 둘 중 하나 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평화를 제의해줍니다. “내가 너를 내버려 둘 테니 너도 나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서로 내버려 둔 채로 평화를 가장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타협하는 것은 평화를 가장한 사탄의 공격에 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차례로 정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꾀를 내어 거짓 평화조약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옷을 남루하게 하고, 곰팡이가 핀 빵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평화를 제안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는 절대로 휴전이나 냉전,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사탄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를 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 본문 15절에 영적 군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 중에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비한, 준비된

복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수많은 시간을 통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고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대가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복음입니다. 바로 그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인 존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을 더 많이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태만하고 게으르고 사탄과 타협하고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하려 하는 군사들이 계속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 군사로써 신어야 할 신발을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평화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앞서 살펴 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나온 장비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받이입니다. 첫 번째가 진리, 두 번째가 의, 세 번째가 평화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사탄의 거짓 공격은 진리로 막고, 사탄의 비난과 고소는 의로 막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이끌어 주는 힘은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란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는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세상을 구속하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

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의로운 상태에 있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의고, 그 의가 평화의 복음을 가져옵니다. 진리, 의, 평화는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평화의 복음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평화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롬 5:1).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 혹은 화평이라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조금도 적대감이 없는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된 상태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도 우리의 적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적이 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추구하는 의로는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 기준 앞에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 시대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발이 세상의 가시들에 의해 상처 나고, 찢기고, 피 흘리며 쓰러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평화

둘째, 평화의 복음은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하지 못한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자기 자신과의 갈등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자기 자신과 불화합니다. 순례의 여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정죄, 죄책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등의 문제들이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게 합니다.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그 발걸음이 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도 자신과 평화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두려워합니까?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혼자 있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미끄러지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화목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이 평화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셋째, 평화의 복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 된 것을 헐어 내셨고”(엡 2:14).

때로 다른 사람의 죄와 문제로 평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편견, 고집, 오해 때문에 다른 사람과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깨어진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나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열매이자 영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13면에 계속)

기획_ 크리스천들의 건강한 명절나기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대화하라!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친절하게, 유순하고 온유하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즐거워야 할 추석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날'로 자리잡고 있다. 잡코리아(2017)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4명이 이른바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어쩌다 추석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핵심은 무심결에 맺은 말 한마디 때문이다.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고, 사랑을 꽃피우는 추석을 보내는 방법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대화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초등학생 때까지만 명절이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친척들한테 용돈도 많이 받고, 또 엄마가 명절이라고 꼬까 옷을 사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부터는 명절에 친척들 보기가 불편해졌어요.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사촌과 비교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는 회사를 비교하더라고요. 지금은 ‘남들은 벌써 애가 몇 살인데 너는 언제 결혼하니?’라는 잔소리를 들어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조카나 친척들께 용돈 드리고 나면 제 통장이 텅텅 비고요...”

A자매(40세, 청년부)의 하소연이 바로 명절 스트레스다. 명절 스트레스는 명절을 쇠면서 받게 되는 심리적·신체적 긴장이나 피로를 의미한다. 명절 스트레스를 단순히 집안일과 명절음식 준비하느라 바쁜 주부와 며느리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린면 어린대로, 나이 들면 나이에 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학생, 미혼남녀, 취업준비생, 노인 등 모든 세대가 명절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가 아니다. 비단 A자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소리다. 지난 12일 <벼룩시장> ‘구인구직 조사’에 따르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인 절반 이상이 명절 연휴에도 출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절 스트레스가 가정과 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명절 이후 이혼 건수가 평소보다 2.5배 증가한다는 통계(2017년 법원행정처)가 이를 증명한다. 특히 명절 이후 10일 동안이 한 해 이혼신청의 14%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스트레스는 건강도 해친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추석이 낀 달에 화병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예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25.8%가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명절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남녀 33.3%가 명절에 다툼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 다툼의 원인은 ‘쓸데없이 참견하거나 잔



〈듣기 싫은 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Q: “공부는 잘 하니?”

A: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 거예요”

-어른들이 원하는 대답은 결국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말이다. 설령 공부를 못하더라도 열심히 한다는데 뭐라고 할 어른은 없다. 몇 점이나 구체적으로 점수를 묻는 사람에게는 ‘만점 받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면 수긍할 수밖에 없다.

Q: “결혼 안 하니?”

A: “좋은 사람 찾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미혼남녀에게 이보다 곤란한 질문은 없다. 답도 없다. 기대하는 바가 큰 어른들을 위해 부드럽게 넘기는 수밖에.

Q: “아기는 언제 낳을 거니?”

A: “정말 낳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다.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잔소리와 걱정을 피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가 말을 맞춘다면 금상첨화. 때론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다.

Q: “애 아빠 왜 이렇게 말랐니?”

A: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한약도 먹었는데 살이 안찌네요”

-이 질문도 역시 부부가 상의해서 모범답안을 마련해 두는 게 좋다. 남편의 식습관이나 체질을 핑계로 넘어가보자. 어차피 자식은 부모가 제일 잘 안다.

소리를 해서’ (57.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피로가 쌓여 예민해져서’ (23.6%), ‘집안 일 분담 등이 불공평해서’ (22.7%),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서’ (19.7%),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아서’ (15.2%) 등의 순이었다. 무심코 맺은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툼 경우가 무려 77.3%나 됐다.

“취직은 했어?”, “결혼은 언제 할거니?”, “연봉(추석 상여금) 얼마나 받니?”

대부분의 가정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명절에 나누는 대화 내용이다. 물론 걱정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질문에 답할 상황이 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 추석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유독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 그래도 힘든데...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7월에 비해 2천명이나 감소했다. 청년실업률은 10%, 실업자 수는 113만3천 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20대, 40대, 50대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고,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했다. 이는 20대 청년뿐만 아니라 40~50대 중년들에게도 직장이나 취업 관련 대화가 불편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결혼도 불편한 대화 주제다. 현재 우리나라 혼인율은 역대 최저이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보여주는 ‘조혼인율’이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이 기록마저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혼인 건수가 13만2,4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500쌍 적었다.

출산율은 또 어떠한가?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가 이미 2006년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다. 이 예상이 실재가 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안부를 묻거나 궁금해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당사자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척들끼리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어떤 주제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대화법

성경이 알려주는 대화법대로 대화하면 가족들끼리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이 없다.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 15:1).

설령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치더라도 화를 내며 대꾸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친절하게, 유순하고 온유하게 대화하면 진노를 가라앉힌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듣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 내기도 더디하라”(약 1:19).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자. 속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싫다고 중간에 끊는다던

지, 상대방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대화를 지속할 수도 없고 다툼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잔소리와 관련된 말씀도 있다. 가슴에 새기자.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잠 17:9).

잔소리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결국 잔소리다. 허물을 들주는 대신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함으로써 회복시키고 격려해야 한다(살전 5:11).

성경이 말하는 대화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

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3:9).

말로 공격하거나 책망한다고 똑같이 상대방에게 대꾸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 본보기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각자의 수준에 맞춰 들어주시고 가르치셨다. 우리도 예수

님처럼 겸손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대화로 표현해야 한다. 가족과 친척들의 잔소리는 상처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대범함도 필요하다.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잠언 25:11).

10대가 듣기 싫은 말	20~30대가 듣기 싫은 말	40~50대가 듣기 싫은 말
“너 몇 등 하니? 공부 잘 하니?”	“어디 취업했니? 아직도 백수야?”	“OO는 승진했더라”
“OO는 OO대학 갔다더라”	“명절인데 어디 안가냐? 애인도 없어?”	“연봉 얼마 받니? 요즘 회사 괜찮아?”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찘어?”	“명절 보너스 많이 받았어?”
“키가 작네”	“결혼 언제 할거니?”	“OO는 강남에 아파트 샀다더라”
“네 언니는 못하는 게 없던데...”	“OO집 자식은 비싼 선물했더라”	“살이 더 빠진 것 같구나”

전문가 기고

명절에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스피치 전문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추석이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친척들로부터 용돈 타는 재미와 명절음식 먹는 즐거움으로 늘 기대에 차 있었던 기억이 있다. 종갓집 며느리였던 어머니는 차례음식 준비로 며칠 전부

터 분주하였고, 우리도 친척들 나눠줄 음식을 만드느라 허리가 아팠었다. 그래도 들뜬 마음에 한없이 행복했다. 어머니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명절이면 새 옷을 늘 사주셨다. 명절 때 만나는 친척 동생들은 키가 훌쩍 커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학, 결혼, 취업, 출산이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 즐거운 명절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피하고 싶은 자리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꿈이 많았던 나는 일에 몰두하느라 결혼은 뒷전이였다. 친척들은 노처녀가 되어가는 나를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서른을 넘기면서는 어머니까지 “함 들어온다. 함 들어오나 내다봐라!”는 잠꼬대를 하기에 이르렀다. 내 상황이 어려웠으니 나보다 다섯 살 위인 남편의 노총각 시절은 더했을 것이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이 “아직 좋은 소식 없니?”라고 말할 때마다 어른으로서 당연히 갖는 관심과 걱정의 표현인 줄 알면서도 짜증이 났다. 혼기가 찬 미혼남녀에게 이 질문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미혼남녀에게 “아직 좋은 소식 없니?”라는 질문은 고문에 가까운 멘트이다.

결혼뿐만이 아니다. 재수, 삼수를 하며 대학 입시에 거듭 실패하는 입시생, 수십 개의

이력서를 내고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는 취업준비생, 아기를 갖고 싶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가슴에 멍이 든 불임 부부, 사업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좋은 소식 없니?”라는 말은 너무나 잔인한 말이다.

“아직 취직 안 했니?”
“OO는 대기업에 취업했더라.”
“살 좀 빼라, 관리 안하니?”
“결혼은 언제 할거야?”
“애인은 없니?”
“아무데나 되는데로 들어가.”

“형님은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어머, 안 보는 사이에 더 멋있어졌네!”
격려, 인정, 긍정의 말이 전도의 포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다.

“기술이라도 배우는 건 어때?”
“어디 자리 한번 알아봐줄까?”
“올해 몇 살이야?”
이 말들은 젊은이들이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한다.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올케 앞에서 명절에 어찌다 한번 방문한 시누이가 “아니, 엄마 얼굴 왜 이렇게 핼썻해졌어?”, “아버지 속옷 좀 자주 갈아입혀드리지, 노인 냄새 나네”라면서 생색내듯 부모님한테 용돈 꾸겨 넣어드리는 대신 수고하는 올케한테 “고맙다”고 말하며 “올케 옷 한 벌 사 입어”라며

봉투를 주는 게 맞다.
명절 가족모임에 눈에 띄게 값비싼 옷이나 보석, 명품시계로 운모를 감고 나타나 설거지 한번 안 한다든지, 본인의 자녀가 명문대에 다니는 걸 은근히 과시하거나, 지위와 부를 갖춘 가문과 사돈을 맺게 된 것을 자랑하는 모습도 꼴불견이다.
크리스천들은 명절에 가족과 친인척 간에 겪는 갈등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신앙’이다. 조상에 대한 예(禮)와 효(孝)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한국에서 장손들은 제사문제로 신앙생활에 큰 장

음에 여유를 가지고 불신자를 품는 훈련을 해야 한다. 조상을 우상이라고 표현하면 반감만 더해질 뿐이다. 종교적인 논쟁은 결론도 없고 답도 없다.

정치이기도 마찬가지다. 진보와 보수 간에는 좁히기 어려운 간극이 있다.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이번 3차 남북회담을 두고도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가 다르다. 여기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다가 큰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명절에 꼭 듣고 싶은 말

이번 추석에 친척들을 만나면 먼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좋아 보이네요.”
“형님은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어머, 안 보는 사이에 더 멋있어졌네!”
“음식 솜씨 여전하세요 저는 명절 때가 너무 기다려져요 조금만 싸주세요.”
“명절 때만 만날게 아니라 저희가 밖에서 식사 한번 모실게요.”

교회 서점에서 축복의 말씀이 적힌 조그마한 액자나 액세서리라도 준비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과 함께 나누자. 무교(無敎)나 불교 신자라도 싫어할 리 없다. 비신자들도 지옥 가라는 소리보다는 천국가라는 소리를 좋아하고 축복의 말을 좋아한다. 잔소리보다는 용돈을 주는 게 전도의 지름길이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달리 가족이나 친척은 어렸을 적 모습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룬 사회적 위상을 인정하기보다 가족의 위계질서에서 대하기를 원한다. 그게 맞는 일이고 그걸 인정해야 즐거운 만남이 된다. 올 추석에는 상대방에게 할 말을 미리 준비해 가져. 격려의 말, 인정의 말, 긍정의 말이 전도의 포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다.

온 누리에서 만난 온누리

“헌신과 섬김 앞에서는 늘 청춘이다!”

평신도이자 목회자 돕는 목회자 김영식 성도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 말에 온누리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노하우와 선교정신이 사역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만한 자산이 없다며 온누리교회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와 선교정신을 바탕으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마지막 주인공은 온누리교회 평신도이자 목회자를 돕는 목회자 김영식 성도(마포공동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누구나 ‘은퇴’를 두려워한다. 은퇴 이후 삶이 막연하고 걱정되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온누리교회 평신도이자 목회자 돕는 목회자 김영식 성도가 그 본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식 성도는 은퇴를 세 번이나 경험했다.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당했고,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은퇴했다. 이제는 목회자로서의 은퇴를 앞두고 있다.

“자족하고 남은 것은 베풀어라”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헌신과 섬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은퇴 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다 찾은 용평 헌신자훈련학교에서 헌신과 섬김이라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찾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장애인, 미자립교회,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데 집중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당시 저는 사십대 중반으로 한창 일할 나이였는데 너무 일찍 은퇴를 하게 됐어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제 뭘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아내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김영식 성도는 울산과 창원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8년 근속했고, 삼미 특수강의 신우회 회장으로 섬길 만큼 애사심과 신앙심이 컸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큰 상심을 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하다 일단 서울로 이사를 왔다. 큰 도시로 가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착할 교회를 찾다가 전에 섬겼던 학생이 추천해서 한번 들른 곳이 바로 온누리교회 목요찬양에 배웠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온누리교회에 와서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됐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고등부장으로 오래 섬겼는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었는데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 비결이 참 궁금했어요.”

온누리교회의 제자양육 훈련을 받아보고 싶어 강원도 용평에 있던 헌신자훈련학교를 찾아가다. 헌신자훈련학교는 평신도들



헌신과 섬김을 삶으로 보여주는 김영식 성도와 최영이 권사 부부.

을 16주 동안 훈련시키는 당시 온누리교회의 대표적인 양육기관이었다. 그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탄생했다. 김영식 성도도 그곳에서 성장하고 변화했다.

“눈 쌓인 마당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남은 것은 베풀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헌신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용평 헌신자훈련학교를 수료한 김영식 성도는 ‘남영동 공부방’에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남영동 공부방은 온누리교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복지기관이었다. 김영식 성도는 그곳을 관리하면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학업지도를 했다. 남영동 공부방에서 청소년들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김영식 성도의 섬김과 헌신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봉사자들에게 도전을 받은 것이다.

“나도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보이더라고요. 혼자서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이 몹시 버거워 보였거든요. 목회자 혼자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일예배, 주일예배, 심방을 하려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부교역자를 초빙하면 좋겠지만 미자립교회는 그럴만한 여력이 되지 않거든요.”

성도로서 누군가를 도울 방법이 있고, 목회자가 되어 목회자를 돕는 방법이 있었다. 목회자 한 명만 있어도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

두 번째 은퇴, 그리고 세 번째 은퇴 앞두고

서울장신대학교와 한영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김영식 성도는 2004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문적인 섬김 분야를 알고 싶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변동코이노니아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사회복지사와 직업훈련사로 장애인들과 지역 어르신들을 섬긴 적도 있다.

“동기 목회자들은 상당수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척교회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 목사님이 ‘신학교 나왔다고 개척하지 말고 달란트에 따라 섬겨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미자립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돕는 목

회자로서 사역을 했어요.”

김영식 성도는 매주 주일 아내 최영이 권사와 함께 미자립교회를 찾아다녔다. 서서울중앙교회, 샘물교회, 롯기교회, 꿈이있는교회 등에서 12년 동안 사역했다. 주로 새벽예배 설교와 심방을 도왔다. 사례비는 받지 않고 사역을 했다. 2009년 60세가 되었을 때 변동코이노니아에서 그의 인생 두 번째 은퇴를 맞이했다. 수입이 끊기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뻔했지만 서예가로 활동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다.

“제가 서예를 할 줄 알아요. 나름 글 솜씨가 있어서 젊을 때부터 교회 벽보, 현수막은 제가 썼거든요. 요즘은 교회 현수막을 기계로 만들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썼어요. 온누리교회에 와서도 서예를 계속 했어요. 변동코이노니아에서도 어르신들께 붓글씨를 선물하면서 전도했구요. 지금은 우연한 기회에 서예가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해까지 협동목회자로 미자립교회를 섬기던 김영식 성도는 올해로 딱 70세다. 세 번째 은퇴를 맞이할 나이가 됐다. 김영식 성도의 사전(辭典)에는 직업적 은퇴는 있지만 헌신과 섬김의 은퇴란 없다. 지금은 안식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누구를 섬길지를 고민하고 있다.

“미자립교회 섬김은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젊은 성도들과 소통하려면 젊은 목회자들이 더 좋잖아요. 저는 이제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어요. 노인들의 마음은 노인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어르신들께 복음만큼 필요한 것도 없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김영식 성도의 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헌신과 섬김 앞에서는 청춘이다.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섬겼던 모든 곳에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니다. 기도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늘 든든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헌신은 끝이 없고 그 대상도 무궁무진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헌신만큼 즐거운 삶은 없습니다.”

CGNTV 프로그램 제작현장을 가다

그곳에서 찾은 세 가지 보물 ‘믿음, 배려, 열정’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CGNTV 프로그램 제작현장이 몹시 궁금했다. 그래서 달려갔다. CGNTV 제작현장은 한마디로 고군분투 그 자체였다. 최신 장비를 갖추지는 못했어도, 인력이 조금 부족해도 일당백 직원들의 프로의식이 빛나고 있었다. 한 영혼을 위한 CGNTV 프로그램에는 양질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CGNTV 임직원들의 구슬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믿음, 배려, 열정...

CGNTV 프로그램 제작현장에서 발견한 세 가지 보물이다. CGNTV가 왜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날 찾은 곳은 CGNTV가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평범한 이들의 평범하지 않은 삶을 조명한 ‘예수님의 온도 36.5도’ (이하 36.5도)와 모바일 콘텐츠 ‘퍼즈’ 제작현장이었다.

평범한 이들의 평범하지 않은 삶 ‘예수님의 온도 36.5도’

36.5도 제작진을 만난 곳은 남대문시장 도매상가다. 이곳은 액세서리와 가발, 아동의류 같은 잡화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수천 개의 매장이 있고, 매일 수만 명의 상인들과 손님들이 북적이는 곳이다. 지난 12일은 남대문시장 도매상가가 유독 북적였다. 그런데 CGNTV 제작진은 남대문시장 도매상가에서 어떤 촬영을 하는 것일까? 유동희 PD가 그 궁금증을 풀어줬다.

“36.5도는 관찰 다큐멘터리예요. 지상파에서 방영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3일과 비슷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입니다. 시장, 학교 등지를 돌러 보면서 평범한 이들의 평범하지 않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고 계시는지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남대문시장 도매상가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천 상인들과 전도사님의 일상을 살펴볼 거예요.”

이날 제작진은 새벽 6시부터 촬영을 시작했다. 남대문시장 도매상가 개점 시간에 맞춘 것이다. 첫 번째 촬영 대상은 가발을 판매하는 신은식 권사(화정벚엘교회)다. CGNTV 제작진들은 신 권사의 상점에 관찰카메라를 설치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양해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신 권사가 손님을 맞이하고, 주변 상인들과 어울리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담아내는 것이 이번 촬영의 목표다. 신 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손님들과 남대문시장에서 이웃 상



36.5도(좌)와 퍼즈(우) 제작현장에선 한 영혼을 향한 CGNTV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손님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물하고 있는 인물이다.

“CGNTV 시청자들이 ‘저렇게 크리스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번 촬영의 목적이예요. 삶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게 이 프로그램의 백미고요. 남대문시장 도매상가에서 전도하는 상인, 앞장서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크리스천 상인, 새벽같이 심방을 다니는 전도사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 세상에 크리스천 문화를 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36.5도의 출연자 신 권사가 생각하는 세상에 크리스천 문화를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 때나 이웃 상인들과 교제할 때도 그 사실을 잊으면 안돼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삶 자체가 세상에 기독교문화를 심는 방법이에요.”

36.5도는 10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남대문시장 도매상가, 노량진 학원가, 홍대 등지에서 삶으로 전도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여과 없이 담아 낼 예정이다. 분주한 촬영 현장에서도 CGNTV 제작진들의 믿음과 배려가 돋보였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상인들을 배려하며 촬영하는 CGNTV 제작진의 모습에서 작은 예수를 엿볼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 36.5도는 10월 23일 첫 방송되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CGNTV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분의 영상으로 전하는 성경말씀 ‘퍼즈’

같은 날 새벽, ‘퍼즈’ 제작팀은 일출을 담기 위해서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를 찾았다. 퍼즈는 CGNTV가 지난해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1분 내외 말씀묵상 영상이다. 출근 및 등굣길에 모바일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어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신규 콘텐츠이다.

말씀묵상 콘텐츠 촬영현장은 매우 조용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일출 명소인 두물머리에는 이미 50여 명이 일출을 담기 위해 북적였다. 남한강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잡기 위해 뛰어다니는 제작진에게 말 한마디 걸새도 없었다. 퍼즈 제작진은 특정 말씀과 말씀에 어울리는 자연, 인물, 상황 등을 버무려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날마다 구슬땀 흘리고 있다. 제작진의 노고가 참으로 눈물겨웠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

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 111:3).

이날 촬영은 시편 111편 3절 말씀에 맞춰 청년이 두물머리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영상을 담았다. 촬영은 일출 시간인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이어졌다. 여타 프로그램보다 촬영 시간이 짧아서 쉬울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제작진들은 “영상이 짧은 만큼 1초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촬영을 마친 제작진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한강으로 두 번째 촬영을 떠났다.

지금까지 제작한 퍼즈 영상은 CGNTV의 모바일 콘텐츠를 모아둔 홈페이지 SOON(www.cgntv.net/tv/soon.cgn)과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cgntv)에서 볼 수 있다.

추석 특집프로그램

CGNTV가 추석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정이 넘치는 농어촌교회 사역자들의 공감 에피소드를 다룬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를 비롯해서 음악과 다큐, 토크 등을 선보인다.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에는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 박에스터 사모가 출연해서 탈북민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명절을 보낸다.

‘나침반’에서는 ‘국제로잔위원회’ 마이클 오 총재와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가 출연해서 사역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나눈다.

‘김영우의 스윗사운즈’에서는 홍대와 여의도 등 다양한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페이머스’가 출연해 멋진 무대를 꾸민다.

‘판타지 메이커스’는 기독교 판타지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한다. <반지의 제왕>의 J. R. R. 톨킨, <나니아 연대기>의 C. S. 루이스 등 세계적인 작품을 다룬 예정이다.

추석 특집 다큐멘터리 ‘우리가 더 미안해’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삶과 고백을 다룬 예정이다. CGNTV 방송은 IPTV(olleh ch.237, Btv ch.302, LGU+ ch.183)와 케이블(DLIVE ch.304, CJ헬로비전 ch.322)로 시청할 수 있다. 라이브 앱 ‘CGNTV LIVE’를 통해 모바일로도 시청할 수 있다. 다시보기 서비스는 공식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제공한다.

* 편성표

방영 시간	프로그램
23일(일) 오전 10시 30분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일(일) 오후 11시	판타지 메이커스
24일(월) 오전 8시	나침반(마이클 오 총재 국제로잔위원회)
24일(월) 오전 11시 30분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4일(월) 오후 1시 50분	김영우의 스윗사운즈(재방)
24일(월) 오후 3시 30분	우리가 더 미안해
25일(화) 오전 8시	나침반(이호택 대표 피난처)

위기 청소년들에게 심과 꿈과 배움을!

군포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준공감사에배 및 기념식

군포시 온누리청소년센터(구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준공감사에배 및 기념식이 지난 19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훈 담임목사(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정호욱 목사(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 한대희 군포시장, 센터 졸업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온누리청소년센터는 경기도 군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심과 꿈과 배움을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전문시설이다. 2016년 경기도 교육청이 선정한 장기위탁 대안학교 최우수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온누리청소년센터의 역할은 상담,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삶의 목적을 되찾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위기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자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1천 명이 넘는 위기 청소년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이요셉 형제(34세)에게 온누리청소년센터는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 축구선수라는 꿈이 사라지면서 방황하다 16년 전 온누리청소년센터에 오게 되었다. 온누리청소년센터는 정말 따뜻했다. 난생 처음 진심어린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잃었던 꿈과 용기를 얻었다. 지금 이요셉 형제는 군포시 미스터피자 3호점 점장으로 일하고 있다.

온누리청소년센터 역사와 하는 일

온누리청소년센터는 2002년 문을 열었다.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온누리청소년센터.

당시 온누리복지재단이 경기도 군포시에서 청소년복지사업을 시작한 것이 발판이 되었다. 2002년 11월 현재 위치해 있는 군포시 산본동에서 '하나로군포시청소년쉼터'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다. 2005년에는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및 운영사업'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월 기관명도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로 변경됐다. 2012년에는 '하나로꿈학교(대안학교)', 2014년에는 '꿈의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추가로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온누리청소년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온누리청소년센터 재건축을 결정했다. 시설이 노후 돼서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재건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 2월

공사를 시작해 8월 준공했다.

온누리청소년센터가 재건축할 수 있도록 물질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춘애 권사(서빙고공동체)다. 이춘애 권사는 자신이 살던 '승애(承愛)의 집'을 2009년 온누리교회에 기부했다. '승애(承愛)의 집'은 남편의 이름(이승현)과 자신의 이름(이춘애)을 합쳐 '사랑을 이어간다'는 의미다. 이춘애 권사가 기부한 집을 팔아서 일부 재건축 비용으로 사용했다.

현재 온누리청소년센터는 지상 4층 대지면적 374.5㎡, 연면적 833.08㎡ 규모로 강의실, 쉼터, 카페,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1층과 4층은 대안학교, 2층은 지역아동센터, 3층은 남자청소년 중장기쉼터로 사용된다.

온누리청소년센터는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하나로꿈학교, 꿈의집 지역아

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상담, 의료, 학업, 자립을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청소년 8명이 생활하고 있다.

하나로꿈학교는 기본 교육과 진로지도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꿈을 발견하고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대안학교다. 하나로꿈학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안교육과정'과 고등학교 학업중단 희망자 및 징계 위기학생,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정 장기위탁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16명(검정고시 1명, 장기위탁 대안학교 15명)이 하나로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꿈의집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습능률과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응력을 높이도록 돕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생 35명이 이용하고 있다.

성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있다. 국어, 수학, 과학 등 기본교과 교육봉사와 미술, 글쓰기, 댄스 등 재능기부봉사, 청소년 멘토 등이 그것이다. 봉사시간은 조절이 가능하다. 청소년들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1년 이상 섬길 수 있는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기도와 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31-399-7997

후원: 하나은행 573-910015-93705

(예금주: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사역칼럼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



김형근 소장
(온누리청소년센터)

온누리청소년센터가 준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온누리교회 온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온누리청소년센터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 대개 가정폭력이나 가정이 깨진 경우다.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데 정서적 지원과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늘어나는

것 같다.

내가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은 청소년들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크고 작은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삶이 변화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올 수 있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 청소년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 청소년들에게 빵과 떡과 함께 복음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축하합니다

새 꿈을 꾸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쓰이기를



이춘애 권사
(서빙고공동체)

군포 온누리청소년센터 준공기념예배에 참여해 감사패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1980년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심장병으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빈 자리를 채울 길이 없어 방황하던 저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온누리청소년

터 준공이라는 감격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평남 순안에서 한국으로 피난 온 저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늘 나누고 베푸는 사역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삼형제가 적극 협조하여 2009년 11월 하용조 목사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던 집을 교회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사후에 알리는 것으로 목사님과 이야기하였고, 이번 온누리청소년센터 건물을 새롭게 건축하는 기금으로 총당게 되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온누리청소년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유익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하늘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빕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제안하는 '행복하게 사는 성경적 방법'

우리가 매일 죄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



차준구 장로
(양지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담당)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눅 19: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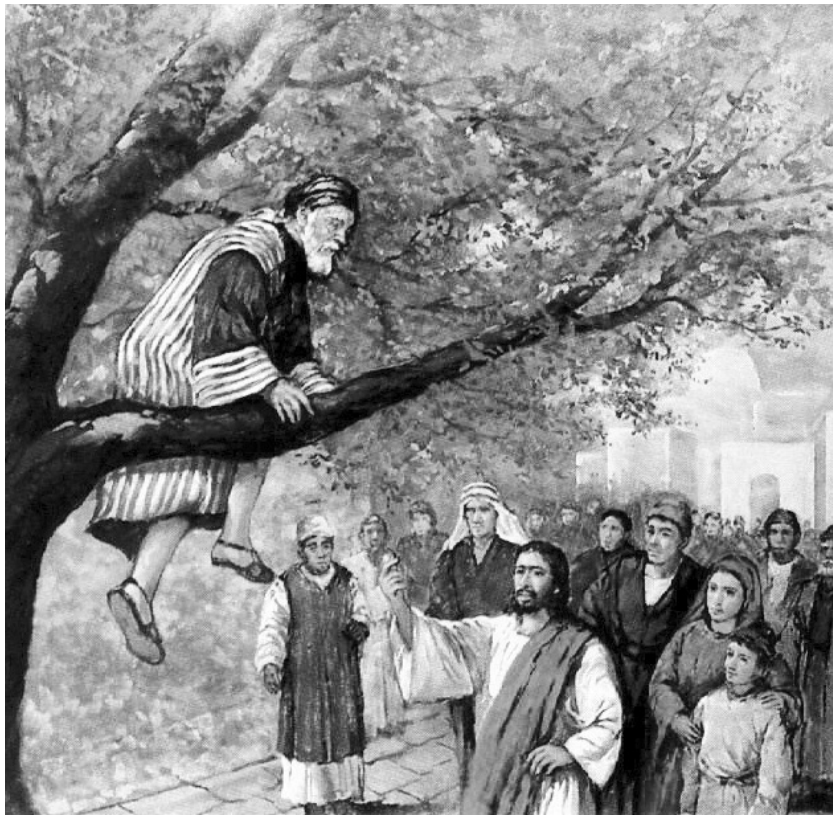
삭개오는 부자였고 키가 작은 세리장이었다. 그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로마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다. 백성들을 착취했던 삭개오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웃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삭개오에게 자신의 이웃들에게 배척당하는 고통은 죽음과 같았다. 그의 마음이 병들어 갔다. 삭개오는 현실을 망각해버리고 싶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현실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그 이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다. 삭개오는 부유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고통스러웠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었기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웃들에게 왕따 당하는 삶은 고통 그 자체였을 것이다.

조현병 환자들이 환청과 망상을 겪는 이유도 고통스런 현실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도피하려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고통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서 현실을 도피하려는 시도다.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에서 도망가고 싶어 한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끊임없는 고통이 지속될수록 현실 도피에 대한 소망이 강해진다.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도피 욕망이 강해지면 해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잠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다. 또한 고통스런 상황에서 환상과 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몸은 현실에 살고 있지만 정신은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 사는 그 시간은 잃어버린 현실이다.

둘째, 현실의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살았다. 이처럼 외모, 학벌, 돈, 능력 등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 열등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간다. 비교하는 대상과 같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거나 권력을 좇아 불나방처럼 달려든다.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들은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현실을 포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힘을 갖고 싶어 한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간절함도 있다. 삭개오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과 힘을 선택했다.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힘이 있고, 로마에 바칠 세금을 빼고도 많은 돈을 착취할 수 있었다.

셋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구원을 받았느냐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열매로 살면 늘 후회하고 화개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자신을 파멸로 끌고 가는 삶은 결국 자신의 현실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잃어버린 삶에는 두 가지 상실이다. ‘삶의 목표 상실’과 ‘삶의 시간

상실’이다. 삶의 목표 상실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것이고, 삶의 시간 상실은 살아가는 시간들을 후회하며 보내는 것이다. 삭개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마음의 평강을 찾지 못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현실은 목표가 있는 삶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다.

잃어버린 현실은 찾는 열쇠 ‘복음’

그렇다면 잃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복음에 답이 있다. 우리는 잃어버린 현실을 찾아주는 복음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일 등을 소문으로 들을 때마다 삭개오의 마음이 벅차올랐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현실을 다시 찾게 해주고, 내면의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 맞닥뜨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들어서 아는 복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나갔다. 다만 키가 작았던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그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들어서 아는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 더 이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현실적응을 못하고 보낸 날들을 슬퍼하며 푸념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때야말로 들어서 아는 복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눅 19:10).

예수님이 잃어버린 삭개오의 현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먼저 다가가신다. 길거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으로 목마라 있던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갔다. 그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목마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지금 내 영혼의 갈급함을 느낀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을 만지는 것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 예수님은 고통 받는 사람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죄를 묻고 따지지 않으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신다. 우리도 고통을 받을 때 그 원인을 묻기보다 예수님께 힘든 마음을 먼저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곧 구원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책감을 벗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눅 19:8).

이 고백은 삭개오가 평소 얼마나 이 문제를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한다. 죄의 고백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죄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미워하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자책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내려놓고 고백해야 한다.

삭개오는 이웃과 공동체 생활을 회복했다. 삭개오가 더 이상 이웃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삭개오가 계속 세리를 했다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웃과 잘 지내야 한다.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큰 행복입니다.”

“전도는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구역 맞춤전도 세미나 325명 참석

지난 17일 전도사역본부와 (사)복음의전함이 연합해서 ‘구역 맞춤전도 세미나’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개최했다. 93개 교회 및 단체에서 325명이 참석했다.

구역 맞춤전도 세미나에서는 여성민 목사(전도본부장)가 ‘맞춤전도 원리’, ‘구역맞춤전도의 실제’, 고정민 장로(복음의전함 이사장)가 ‘국내외 복음광고 사례 및 효과적인 전도 콘텐츠 활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 내용을 적용해보는 워크숍도 했다.

여성민 목사는 “구역 맞춤전도는 전도대상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구역식구들이 함께 기도한 다음 전도대상자를 구역예배에 초대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전도대상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고정민 장로는 “일상에서 전도지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자



구역 맞춤전도 세미나 참가자들이 강의를 듣고있다.

연스럽게 확장된다”면서 “전도는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면했다. 정진희 전도사(관악교회)는 “믿지 않는 이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닫힌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고, 황태근

장로(동천교회)는 “전도가 늘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막막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교회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한마음정신회복예배 20주년 기념 세미나

10월 15일과 22일, 강사 김철웅 소장, 황태연 부장

한마음정신회복예배 20주년 기념 세미나 ‘명의를 만나다’가 오는 10월 15일과 22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10월 15일에는 김철웅 소장(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이 ‘조현병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치료전략’, 22일에는 황태연 부장(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사업부)이 ‘조울증의 이해와 치료’, ‘행복한 삶을 위한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의한다. 회비는 3만 원. 참가신청은 10월 14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www.onnuri.or.kr).

문의: 010-8270-7565

/ 권한승 기자 kcs123@onnuri.org

오케스트라 ‘CMChamber’

첫 번째 프로젝트 음반 ‘Thanks’ 출시

음악회를 통해서 CGNTV를 후원하는 프로젝트 챔버 오케스트라 ‘CMChamber(Christian Musician Chamber)’가 10월 1일 첫 번째 프로젝트 연주 앨범 ‘Thanks’를 출시한다.

CMChamber가 만든 앨범 Thanks에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오 신실하신 주’ 등 친숙한 찬송가를 실내악으로 편곡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제작됐다.

10월 7일(주일)부터 두란노서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수익금으로 CGNTV에 CD 4천장을 기부하고,



CGNTV 홍보를 위한 음악회를 준비한다. 앨범 가격은 1만5천 원이다. CMChamber는 기독교 선교를 위한 연주를 기획하는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이다. 국내 정상급 크리스천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능기부와 후원으로만 운영된다. 문의: 02-577-9686

서초C공동체 1다락방1사역

서초C공동체 나눔다락방 성도들이 지난 15일 수원시 장한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꿈을 키우는집’에서 1다락방1사역을 실시했다. 나눔다락방 성도 6명이 어린이 7명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놀이봉사과 교육봉사를 실시했다.

이상우 집사(서초C공동체)는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어른,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꿈을 키우는집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는 10월 13일 꿈을 키우는집에서 열리는 자선장 물품(의류, 생필품 가전제품 등)을 모집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5398-8068

제71회 성령 수련회

제71회 성령수련회가 10월 6일 오후 1시 30분 Acts29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된다. 박성은 목사(온누리교회)가 ‘성령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강의한다. 성령님의 역할과 능력을 배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10월 2일까지 아이스쿨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 010-7120-5221

양재 010-8955-3610

11기 일.하.세.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내년 2월까지 매월 재정 특강도 이어져

11기 일하세. 아카데미가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충성홀에서 열린다. ‘일과 예배’, ‘성경적 직업관’, ‘그리스도인의 문화관, 성공관, 재물관’, ‘일터에서의 대인관계’, ‘일터에서의 신앙성장’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신

청은 아이스쿨, 회비는 3만 원. 한편 GUM예배(일.하.세. 사역팀에서 드리는 일터회복예배)에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크리스천 재정원칙’을 주제로한 특강을 내년 2월 9일까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서빙고 선교관 101호에서 열린다. 문의: 010-4122-7255

9월 세레자

■서빙고	설대석 이지연	이화준 850721	최용성 최윤영	입교
권학자 771018	송재나 180319	임성희 730411		이동은 940204
김민수 780715	송승호 강인애	조은석 810512	■대학청년	정소연 981126
김혜숙 670930	송재이 161113	입교	여호수아	박연수 980104
반승한 800930	송승호 강인애	오예림 991207	김규영 850514	
양현숙 621006	유서영 170110	차이슬 860107	김세미 870526	J4U
이재형 760423	유승준 서정은	유아	김정아 780924	박종인 861229
최은정 851010	임예향 161120	김민중 161020	유호명 900702	유아
홍순교 440629	임수민 김수미	김교준 문정희	입교	김하임 180101
유아	정은서 160913	남소현 161017	김하람 890410	김아름
고 건 160917	정주안 이은화	남상철 김은영	임성재 920409	
고준원 장은주	정준서 160913	서하은 171020	전혜정 860522	POLE2
김루엔 170101	정주안 이은화	서성원 진승림	하늘	입교
김성일 최혜영	홍유나 160930	손재원 160713	입교	한다현 961018
김설아 170727	홍민표 정윤정	손원일 이수연	김소현 980609	SNS
김좌경 김하늘	홍하은 170306	여하은 170520	오어진 970308	김인호 921215
서승언 160914	홍원준 정미영	여현진 신민경	이선민 851130	최진화 891128
서범준 정진해	■양재	이예지 160713	허브	황고운 951230
서이언 180117	김엘카나870224	이일환 이승연	김경민 940908	유아
서범준 정진해	송영민 830605	전은유 160730	신재은 980312	공유민 170826
설윤제 161031	신윤미 791001	전재환 임지윤	이예석 950504	공 휘정지민
설대석 이지연	이 슬 900718	최시연 160920		
설재이 161031				

헬로맘-성경적 태교와 출산 후 스쿨

10월 26일~11월 30일 서빙고 시온홀

헬로맘-성경적 태교와 출산 후 스쿨이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지하2층)에서 열린다. ‘성경적 태교’, ‘자연임신법, 생명의 존제’, ‘출산후 겪게 되는 산후 우울증’, ‘아이의 수면교육’, ‘흔히 겪는 여성질환의 이해’,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 예배’를 주제로 강미향 목사, 길기철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산부인과), 박은정 교수(웨스트민스트 상담대학원), 윤혜숙 사모(어린이성경 번역자), 박세나 교수

(산부인과 전문의), 이향순 선생(성경동화 <예수님>저자)이 강의한다. 헬로맘-성경적 태교와 출산 후 스쿨에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거나 앞둔 여성, 성경적 태교를 배우고 싶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자녀동반 가능하고, 탁아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아이스쿨: ischool.onnuri.org

문의: 010-2786-6221



후쿠오카 기 · 도 · 제 · 목

- 9월 24일(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러브소나타 집회에 임하기를
- 9월 25일(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러브소나타 되도록
- 9월 26일(수)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한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갖기를
- 9월 27일(목) 섬기는 스태프들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움직이도록
- 9월 28일(금) 이재훈 목사님과 출연진에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 9월 29일(토) 장소, 시간, 교통, 장비, 날씨, 설비 등 모든 것이 순조롭도록
- 9월 30일(주일) 후쿠오카 현지 교회들이 일본 부흥의 불씨가 되도록

제1214호 | 2018년 9월 23일(주일)

■ 부천 와이즈패밀리 스태프 간증



/ 김재형 코치(와이즈패밀리)

와이즈패밀리를 아시나요?

부천 와이즈패밀리는 2016년 3월 시작해서 올해로 6기를 맞이하게 됐다. 김정순 목사님께서 부천 온누리교회로 오시면서 와이즈패밀리의 훈련 대상을 어머니에서 아버지까지 확장했다. 현재 와이즈패밀리는 김정순 목사님을 중심으로 5명의 조장과 30여 명의 회원이 운영하고 있다.

부천 와이즈패밀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엄마와 아빠가 함께 강의를 듣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모든 강의의 초점을 자녀교육에 맞추고 있다. 셋째, 강의와 유익한 동영상 등을 보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와이즈 패밀리에서는 부모가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 자녀들에게 인본주의적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와이즈패밀리의 강의는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지혜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자유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를 통찰력 있게

훈 ‘회복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강의와 별도로 필독서를 선정하고 있다. 와이즈패밀리를 진행하기 전에 조장들이 먼저 필독서를 읽는다. 그리고 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원들과 깊이 있게 나눈다.

와이즈패밀리는 본 강의 이후 조별 모임을 진행한다.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집중적으로 나눈다. 가족이나 부부, 자녀와의 문제에 대한 답답함을 나누고 서로 조언도 해준다.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와이즈패밀리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간증했다. 자녀를 통제하기보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셨다.

이번 하기에는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부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와이즈패밀리에 초청한다. 답답함을 쏟아두지 말고 와이즈패밀리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문의: 010-2581-3208

■ 양재 헬로맘 임신 출산 후 스쿨 스태프 간증



/ 이향주 총무(헬로맘 임신 출산 후 스쿨)

행복한 엄마 되기

나는 2012년 처음으로 ‘헬로맘 임신 출산 후 스쿨(이하 헬로맘)’에 참석했다. 당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16주 만에 유산하고 낙담해 있었다. 6개월 만에 또다시 임신을 했다. 다시 아이를 갖게 돼서 매우 기뻐지만 임신기간 내내 아이가 또 잘못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갑자기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때마다 혼자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던 중에 온누리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양재 헬로맘 모임을 알게 됐다. 나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달려갔다. 내가 처음 헬로맘에 갔던 날은 공교롭게 방학을 앞둔 마지막 모임이었다. 엄마들 몇 명과 목사님이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유산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했다. 그리고 평평 울었다. 그 자리에 있던 엄마들과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셨다.

기도를 받고 무사히 첫째 아이를 낳았다. 출산 이후에도 영적으로 힘든 시간이 찾아왔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스쿨은 헬로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헬로맘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모임이었다. 때로는 우유를 먹이면서,

때로는 아이를 안고 재우면서 헬로맘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들었다.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 시간이 흐르고 둘째를 임신하게 됐다. 둘째와 함께 헬로맘 강의를 들었다. 지금은 첫째가 6살이지만 나는 여전히 헬로맘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듣고 있다. 매년 헬로맘은 봄과 가을학기에 진행된다. 지난 9월 14일 헬로맘 가을학기가 개강했다. 매주 금요일에는 헬로맘 중보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엄마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조차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마다 헬로맘 강의를 들으면서 버틸 수 있었다. 헬로맘 강의를 듣고 온 후에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대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헬로맘 강의를 들으면서 남편과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도 배울 수 있었다. 가장 큰 깨달음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행복한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도 말씀이 갈급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하는 모든 엄마들을 헬로맘에 초청하고 싶다.

문의: 010-8889-6857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스태프 간증



/ 윤재선 집사(가정사역공동체)

문제 있는 부부들을 위하여

많은 크리스천 부부들이 자주 싸우고 이혼까지 한다. 그들도 믿음이 좋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쌓여있다. 진정한 크리스천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앙금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직분이 있거나 사역 때문에 마음 놓고 속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부부들의 내면은 더욱 더 깊어만 간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를 섬기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부부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다. 생긴 것이 다른 것처럼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제각각이다. 또한 부부는 결혼 전까지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화합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서로 다른 모습을 수십 년 동안 참고 살아온 부부가 하루아침에 화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해결책은 없는 걸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훈

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은 거저 이뤄지지 않는다. 틀을 깨야만 한다. 알을 깨는 고통과 훈련을 받아야 변화될 수 있다. 그 훈련을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는 순 예배에서도 내놓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다. 그동안 쌓였던 일,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수많은 상처를 주 안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부들이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21기 개강
일정: 10월 13일~11월 4일 매주 토·일
장소: Act29비전빌리지
회비: 3만 원
문의: 010-5471-0854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자 간증



/ 이혁진 성도(S브릿지공동체)

훈련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청년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상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며 세속적인 즐거움을 쫓아 생활했다. 간혹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긴 했지만 어려움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 반복됐다. 내게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많았다. 그때마다 나는 “너나 잘 믿어”라는 말로 일축하곤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정신 차려야지’라고 생각하며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니던 교회를 떠나 온누리교회로 오셨다. 온누리교회는 새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함께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면하셨다. 어머니께서는 서너 달 동안 나와 함께 온누리교회를 다녔다. 그러다 나 혼자서도 잘 다니겠다 싶으셨는지 본인이 다니시던 교회로 가셨다.

나는 온누리교회의 시스템을 잘 알지 못했

다. 가벼운 마음으로 등록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내 예상과 너무 달랐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새신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16주 동안 듣는 것은 나에게 매우 큰 부담이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신앙적으로 한 단계 성숙할 내 모습이 기대됐다. 그래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한두 주씩 빠지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님께서서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인내하며 나를 기다려 주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양육자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동안 안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시간들을 회개하게 하셨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준비할 때마다 양육자님께 “왜 이렇게 분량이 많나?”고 투덜대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나의 부족함을 인내하며 항상 기도도 감싸주신 양육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앞으로 16주 동안의 훈련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것이다.

신앙에세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신원석 목사
(동대문중앙공동체)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일본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마비쵸에 홍수가 났다. 온누리교회와 NGO 더멋진세상 뿐만 아니라 브라질,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수해복구를 하던 중에 홍콩에서 온 한 형제가 내가 목사임을 알고 질문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여기에 오게 하신 겁니까?”

그 형제는 분명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수해복구 현장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형제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내 마음속에 계속 그 형제의 질문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사도행전 1장을 봤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까지 50여 일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중에 40일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중요한 순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간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라고 질문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 왔던 메시아의 사명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질문이었다. 예수님은 뜻밖에도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기에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어야 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가? 수해 입은 낮은 땅을 섬기러 온 이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카야마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스라엘, 로마를 넘어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종종 우리는 가정과 나라에 일어난 일을 궁금해 하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라고 묻는다. 우리가 재난과 환란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은 재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고, 사랑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난으로 삶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다.

수해복구를 하던 중에 어느 집에서 신쥬단지를 보았다. 그 신쥬단지는 진흙이 가득 차 있었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 그 마을에는 8천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교회는 단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의 집이 2층까지 물이 찼었기에 온 집안이 찌어가고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 땅의 영적인 모습이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을에 임하게 하고, 교회가 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힘이 솟아났다. 내가 여기있는 이유는, 성령의 힘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울 뿐 아니라 썩고 더러운 것을 청소하러 온 것이다. 다시는 그 땅이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통해서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로칼럼

신앙의 회복



신섭 장로
(북누리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또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난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불신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듯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급변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복음주의적 신앙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강한 믿음과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진리로 인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무감각, 무감동, 무책임으로 박제되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와 율법주의가 깨져야 한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사람은 성장기 때 권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우상숭배에 집착하게 되고, 자율성을 억압받고 수치심을 느끼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는 상처로 인한 것이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된 사마니즘적 숭배도 우상숭배에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산다. 오직 현재적인 안녕만을 위해서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 순종을 통한 희생의 제사와 신

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를 원하신다.

또 다른 불신은 율법주의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이 내린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해진 규범에 매이게 된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므로 스스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려고 한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일 뿐인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좌절감과 죄책감에 빠진다. 율법주의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행함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하면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보다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때 가능하다. 바로 그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낙담하지 않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은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롬 8:35-39).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앙간증



강어수 성도
(용산공동체)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부여주셨다. 나는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또 믿음은 있지만 신앙의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주일학교 교사로도 헌신했다. 백지상태인 어린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전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들은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나는 다니엘서 말씀이 자녀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보라고 제안했다. 몇 명

의 학부모들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말씀대로 성장한 어린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다니엘은 10대에 적국인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할 사람으로 뽑혀 그곳에서 말과 학문을 배웠다. 당시 바벨론에서는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결국 간신들의 참소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굽주린 사자의 입을 단으셔서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 다리오를 통해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으셨다.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의

밥이 됐다. 바벨론의 왕 다리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서를 내렸다.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고 건져 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단 6:25-27).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죄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다. 하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

슬리지 않고 웃고 멀쩡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 내고 그의 집을 거름 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 낼 수 있는 신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단 3:29).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복음의 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골 3:15).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들과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 셴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준 제자들과도 평화하셨습니다. 원수 된 이들과도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함 그리고 기동력

준비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어떤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두려움 없는 담대함(Confidence)이 임합니다. 전쟁에서 군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있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평화의 복음의 신’을 강조했습니까? 역사가들이 로마 제국이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강했던 이유는 신발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군사들의 손과 발이 곧 무기였습니다. 첨단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손과 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발은 튼튼한데 신발이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적들이 바닥에 못이나 나뭇조각을 뿌려 놓으면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

인들은 ‘칼리가’라고 하는 바닥이 금속으로 된 아주 튼튼한 샌들을 신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밟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어디든지 뛰어다닐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의 신발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 성도들은 평화의 복음으로 인해 담대합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 어떤 상황과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담대함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력(Mobility)이 생깁니다. 구원 받은 성도들,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힘찹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의 발걸음과 쇼핑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전혀 다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군사의 발걸음과 승리의 행진을 하는 발걸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길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유심히 보면 ‘저 사람은 인생을 힘 있게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목적 없이 사는구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면 한 주 동안 군사로 살았는지 포로로 살았는지, 승리하며 살았는지 패배하며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는 발걸음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기동력이 있을 때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합 3:19).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발걸음이 사슴과 같게 하십니다. 그 발걸음이 힘이 있어서 높은 곳을 뛰어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영적 군사는 발걸음이 사슴과 같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유연성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유연성(Flexibility)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자유한 성도들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율법에 대한 집착, 경직된 사고, 복음이 가져오는 평화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유연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은 유연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원하는 대로 흔들리는 유연성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면서 누리는 유연성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보수하되, 그 진리에 현대의 옷으로 입히고, 전하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한 익숙하고 고정된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되,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에서 유연성을 누리는 것이 영적 군사가 누리는 능력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군사로서 죄와 사탄과 싸우되 발이 튼튼해야 하고, 발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탄을 밟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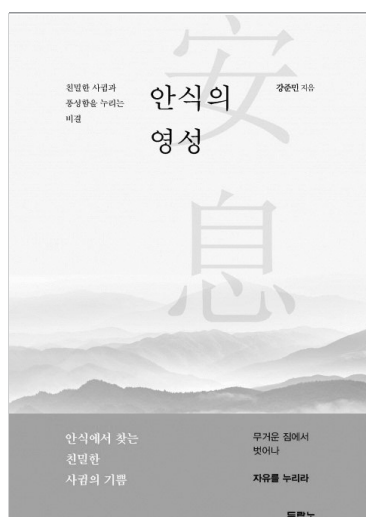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롬 16:20).

교활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짓밟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화평한 자는 능력을 얻습니다.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힘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



〈안식의 영성〉

강준민 저 | 두란노 | 13,000원

현대인들은 성과지향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오로지 자신의 목적과 성공을 향해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다. 삶의 활력이 없고, 에너지가 고갈됐다. 행복감도 바닥을 치고 있다.

이 안타까운 현대인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는 책이 한 권 나왔다. 강준민 목사가 펴낸 〈안식의 영성〉이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

저자는 참된 안식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는 데서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저자는 무엇보다 충분한 숙면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잠을 통해서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충분히 영

양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과 영혼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반자를 붙여주신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 끝장내기



〈골리앗 끝장내기〉

루이 기글리오 저 | 두란노 | 13,000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 만약 당신도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골리앗 끝장내기〉를 읽을 것을 추천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끝장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고 권면한다. 두려움은 크게 자라 온 환경, 숨김,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신의 두려움을 소그룹 식구들이나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도움을 받는다. 둘째, 시편 16편 말씀을 읽는다. 시편 16편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셋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한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떠올리며 찬양을 부른다.

14 온누리신론

게시판

2018년 9월 23일(주일) | 제1214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9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노로 섬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스페인어예배 14:00 도곡교육관 온유홀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톡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제71회 성령수련회 모집 일시: 10월 6,7일 토,주일 접수: 아이스쿨 문의: 서빙고 황보은선 권사(010-7120-5221), 양재 김현옥 집사(010-8955-3610) CMN라파팀 안산M센터 아웃리치 모집 일시: 9월 30일 내용: 외국인 전도지정달, 의료, 이미용 사역 모집: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약사 문의: 심형섭(010-3227-9915) 제520기 진새골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일시: 10월 13일~11월 10일 오후 3시(매주 토요일 5주) 장소: 진새골 사랑의집(경기도 광주) 대상: 수준 높은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부부 문의: 02-444-5882, 031-767-2776 *게시판 광고 마감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 받음 양재 살림기도회 일정 안내 11월 5일까지는 통일아카데미로 대체 11월 12일부터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김정용 총무(010-5339-4522)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양재 온누리교회 간사 모집 모집: 예배지원 및 행정업무(파트) 간사 1명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양식 제공) 문의: 02-570-7469 두란노 아버지 학교 본부149기 일시: 10월 6일~11월 9일 (매주 토 오후 4시)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온유홀 회비: 12만원 접수: 아이스쿨, 02-2182-9100, www.father.or.kr 문의: 박철원(010-9073-2052)
---	---	---	---	---

부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아예배(JEM) 오전 9:00 비전을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초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 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 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을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을	대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분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 4부(청년) 오후 4:00 분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 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을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O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주일예배장소 9월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9/2, 9, 16: 송도 컨벤시아(송도동 6-1) 9/23, 30: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송도동 162-1) [중고등부 예배] 프레스페이스 3층(송도동 8-10) [대학청년부·국제예배] 제너셀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프레스페이스 3층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시 25분 오후 2시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중등/사랑부 11:20 꿈땅1부/고등부 9:00 해브리카즈 오후 2시 대학청년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0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스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이편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CGNTV는 함께합니다



전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되는 꿈, 선교지와 함께 이뤄갑니다.

태국

CGNTV는 태국 내 주요 교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인도차이나반도 복음화의 통로가 됩니다.



처음 CGNTV가 태국에 들어와서 CCT와 함께 하기 시작했을 때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태국에 전하기 위해 작정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CCT교단 룡티왓 마모 목사

인도네시아

CGNTV의 기독 모바일 콘텐츠가 인도네시아의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만 8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서 미디어 선교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선교 도구입니다. 미디어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복음주의교회협의회 로니 만당 목사

대만

CGNTV와 함께 성장한 대만 교회는 중화권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1865년부터 2005년까지 140년 동안 대만의 기독교인은 70만 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70만 명의 성도가 늘었습니다.

- 타이베이 순복음교회 장한업 목사

계층과 언어, 문화의 장벽, 국경을 넘어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CGNTV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CGNTV 이용경 대표



10월 7일,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명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10월 7일 정기후원 주일 행사 시 전 캠퍼스에서 드림통을 수거합니다.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

